



5월 21일  
금요일

# 보도자료

생명의 땅 으뜸진남  
Land of Life, Best Jeonnam

|    |       |    |     |    |     |   |          |
|----|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|----------|
| 실과 | 축산정책과 | 과장 | 박도환 | 팀장 | 박진영 | ☎ | 286-6530 |
|----|--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|----------|

## 전남도, ‘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’ 309농가로 확대!

- 유기·무항생제 축산 농가수 전국 1위로 환경친화 축산 실천에 앞장 서 -

- 전남도는 올해 ‘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’ 지정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1농가를 신규 지정하여 지금까지 총 309농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  - ※ 신규 지정농가(21.) : 21호(한우 17, 젓소 3, 염소 1)
  - ※ 지정실적(누계) : 309호(한우 170, 젓소 12, 돼지 21, 닭 68, 오리 20, 염소 18)
-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사업은 가축의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·공급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사업이다.
- 녹색축산농장 지정절차는 농가에서 해당 시·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·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하며,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.
  - 신청이 가능한 농가는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, 안전관리인증(HACCP),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인증) 인증 중 1가지 이상 인증(지정)을 받은 농가이다.
  - 가축 사육밀도, 축사 위생관리 상태, 분뇨 처리 현황 등 22개 항목에 대해 도와 시·군 담당자,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이 심사를 실시하며, 심사 결과 총 200점중 160점 이상을 얻은 농가를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게 된다.
-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유지·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2백만원을 매년 지원하며,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 자격이 주어진다.

-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은 “환경 친화형 축산 실천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”며 “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, 축산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한편, 전남도는 녹색축산농장 309개소 외에도 1,647농가가 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2019년부터 3년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금년 4월에는 해남 소재 한우농장이 전국 최초로 ‘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’으로 인증받는 등 친환경 축산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.